

## 복음과 율법 4강.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참조 례 19:2; 신 18:13)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짚은 것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의 온전은 야구 선수 중에 10할 타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실력으로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가 자기 개선의 수단도 아닙니다. 율법은 갈뱅이 말한 대로 제 2기능인 ‘억제의 기능’ 을 따라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그건 쉽게 말해 “너 자신을 알라” 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갈뱅이 말한 것으로 하면 1기능 ‘정죄의 기능’ 으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마치 거울과 같이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하실 것은 ‘정죄의 기능’ 이라 할 때,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 실체를 직면시키며 우리를 허무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율법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를 난도질해서 숨을 곳이 없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여 구원에 대해, 영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것을 인정하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날카롭게 어떤 두 세계를 대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여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쪽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고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살 수 있는 세상의 실상에 대해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욱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

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이 목록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의도는 다름 아닌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는 율법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9절에서 18절에 가면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고 하여 사도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쓴 말씀을 통해 이 내용은 특정 시대,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의 운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해도 죄의 삶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 쉽게 얘기해서 두 손 들고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께서 표현하신 내용이 뭔가 불편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이 말하는 우리의 실상, 곧 구원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절망을 직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된다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곧 복음을 믿게 되는 최적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6절에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데 율법을 ‘파이다고고스’ 에 비유한 것은 율법의 역할이 마치 ‘파이다고고스’ 가 주인의 자녀에게 기초적 학문과 교양을 가르치고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면 그의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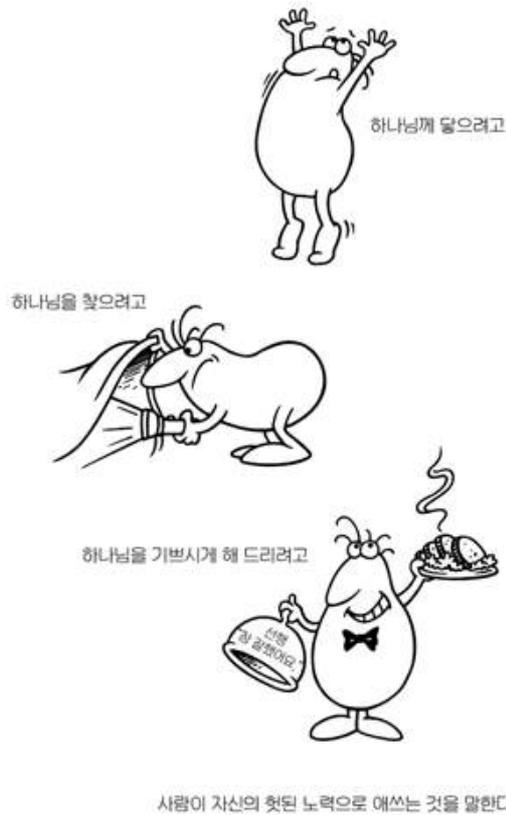
그런 점에서 갈렐이 말한 율법의 제 1기능이 ‘정죄의 기능’ ,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어 인간의 죄 성을 밝힘으로써 죄인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심히 죄 되게 함으로써 죄인을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인도하지 구원하지 못합니다. ‘파이다고고스’ 는 ‘초등교사’ , ‘몽학교사’ 로 주인의 자녀가 자랄 때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자녀는 자유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은 어제 가상의 극단적 예로 의지가 특출한 A장로와 의지가

박약한 B집사 얘기를 했지만 의지가 특출한 A장로의 경우가 의지가 박약한 B집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은 자기 의로 뚝뚝 뭉쳐 자칫하면 예수의 복음과 관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이의칭의’ (以意稱義), 자신의 의지나 각오, 결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以信稱義),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하여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 짚었지만 **신앙은 의지가 다가 아닙니다.**

**분명 신앙은 신앙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율법의 정죄로 자신이 죄와 사망 앞에 무능하다는 것을 직면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공화로 끌려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면 의지가 나쁜 것이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는 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면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 안타까워한 것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내 의지의 노력으로 다시 채우고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 의, 자기 공로만 남게 되어 자칫하면 그리스도의 원수 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계속 인용하는 율법에 매인 종교의 성격을 그린 그림을 생각해보십시오.**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사람이 자신의 헛된 노력으로 애쓰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 (갈 5:1)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 간구하셨는데 우리의 자신의 영적 형편이 어떠한지 결국 돌아갈 자리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율법은 쉽게 말하자면 ‘너 자신을 알라’ 는 것으로 결국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전적인 무능과 실패를 직면시키기 위한 것이란 것이 이해되십니까?
2.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롬 1:17)고 하신 후에 등장시킨 죄 목록(18-32)이나 3장 9절에서 18절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어제 얘기한 가상의 A장로와 B집사를 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니까?